

# 광주법원 청사 별관 개관... 재판 속도 붙고 주차난 해소

###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신축... 주차장 364면 민사과·민사합의과 이동... 법정 찾아 헤매는 민원인 줄어들 듯

광주법원이 개원 이래 30년 만에 종합청사 별관을 신축해 본격 운영한다. 법정 부족 때문에 지연됐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고법은 19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별관 준공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한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13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2021년 2월 첫삽을 뜬 별관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1903.54㎡로 지난 10월 20일 완공됐다.

이번 달 초부터 이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별관 1~2층에는 표준법정 10개소, 중법정 1개·합의실 2개 등이 마련됐다. 등본자동발급기가 설치

됐고 민원인 휴게실도 마련됐다.

3층에는 민사합의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위원실, 회생위원면담실 등이 배치됐다.

4층은 민사단독과와 서고로 구성됐고, 5-6층 27개 판사실에서는 법관들이 업무를 본다.

1심 민사소송 재판은 별관에서 주로 열린다. 광주법원은 1993년 광주시 동구 자산동에 자리 잡은 후 업무가 늘면서 재판 진행을 위한 법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별관 신축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광주법원 주차장은 기존 273면에서 364면(지상 177면, 지하 187면)으로 늘었다.

그동안 광주법원에서는 부족한 법정 탓에 기일 지정이 뒤로 미뤄졌던 것이 일정부분 해소돼 신속

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기존 법정에서 민·형사 사건 재판이 진행될 탓에 법정을 찾아 헤매던 민원인들이 법정을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민사과, 민사합의과 사무실도 별관으로 이동 배치됐다.

또 늘어난 판사실로 인해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관 주변에 새롭게 벤치와 휴식공간 등을 마련해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다.

변호인들도 이번 별관 신축으로 인해 법원 환경이 개선돼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은 "기존 건물에 있던 사무실이 별관으로 이동해 남은 공간에 조정실이 들어와 더 빠른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법원 구성원과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민사법정이 늘어나면서 원활한 재판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준공식을 하루 앞둔 18일 광주시 동구 자산동 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 전경.

## 광주시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 2조6818억 확정

### 올해 대비 12.3% 감소... '책임 돌봄' 1698억·디지털 교육 1058억 등

광주시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이 2조681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이 올해 대비 3757억원(12.3%) 감소한 2조681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돌봄 교육' 부문에 1698억원이 편성됐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1058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복지 예산으로는 2437억원이 편성됐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학교 무상교육 시범사업이 확대됐으며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과 연계한 돌봄유형 다양화, 늘봄학교가 추진된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비로 21억원이 배정됐으며 초·중·고 식재료 예산도 12% 인상됐다. 내년부터 중3·고3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이 지원되며 오는 2026년까지 중·고등학교 전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전자철판 교체

사업에 120억원, 방편한 화장실 개선 사업에 221억원,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에 137억원, 석면텍스·조명교체 16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247억원, 드라 이버트 해소공사 190억원이 배정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례 없는 세입재원 감소로 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뒀다"며 "2024년 확정된 본 예산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 광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택시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택시를 운전하다 광주시 광산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30대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

서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배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차에는 A씨 이외에도 승객이 아닌 2명의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전력과 동종범행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로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방향 모색' 토론회

### 5·18진상조사위, 20일 5·18기념문화센터...사전 신청·당일 현장 참석

5·18기념재단(재단)이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활동 종료 시한(12월 26일)을 앞두고 조사현황을 공유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

재단은 20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공개토론회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안중철 조사위 부위원장이 5·18진상규명 조사현황과 이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조사위 조사1~4과 과장들이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과 이재희 조사위 전문위원이 각각 5·18 조사위 제도개선 과제와 진상규명 향후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 참석 모두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웹포스터 QR코드나 웹사이트 (<https://naver.me/GdiSnV0G>)를 통해 할 수 있다.

원순석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그간의 조사위 활동을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5·18진상규명의 내용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2024 신검 일자·장소 신청

### 광주전남병무청 내년 1월 11일부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18일 밝혔다.

2024년도 광주·전남 병역판정검사는 내년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5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남구 노인일자리 7000여개 제공

### 공익활동형·시장형 등

광주시 남구는 2024년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7000여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사업비 295억원을 투입해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는 모두 6940개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가지다.

사업 수행기관은 남구 시니어클럽과 초록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남구 노인복지관, 광주시장애인연합회 등 남구 16개 기관 98개 사업장이다.

공익활동형(5151명)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스포츠 교통안

전, 도서관 안전, 초등학교 급식 안전, 공원 환경 정비 분야에서 일한다. 사회서비스형(1092명)은 같은 조건으로(일부 60세도 가능) 교통안전 자료 조사, 소방안전 지킴이로 활동한다. 시장형(510명·60세 이상)은 카페, 임대 주택 미화관리, 봉제, 명아주 지팡이를 만드는 사업단에서 일할 수 있다. 취업알선형은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